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18. 7. 23. (제224회)

의 결 사 항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

제 안 자	양 진 오 의원
제안연월일	2018. 7. 23.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

의안 번호	제 호
----------	-----

제안연월일 : 2018. 7. 23.

제안자 : 양진오 의원 외 22명

1. 제안이유

- 현 정부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시기에 40여 년간 구미와 함께 해온 삼성이 네트워크 사업부를 수도권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불안감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대기업 수도권 이전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며 43만 구미시민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2. 주 문

- 불임 결의문과 같음
- 불임 :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

43만 구미시민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의 수도권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까지 수도권은 기업의 대규모 연구개발시설을 독식하여 수많은 R&D두뇌를 결집하여 온 반면, 지방은 단순한 생산기지만 남아 공장 기계가 버터 주기만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숨죽여 살아왔다.

우리 시의회는 이러한 지역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예견하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반대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구미의 중요한 생존수단인 네트워크사업부를 이전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구미시의회는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지역청년의 꿈과 희망을 빼앗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이에 구미시의회 의원 23명은 시민이 새롭게 잘살며 더 나은 삶을 꿈꾸기보다 어려워진 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구미시민을 대표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삼성전자는 애니콜신화를 탄생시킨 43만 구미시민을 기억하여 네트워크사업부 이전계획 결정을 철회하라.

1.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기업 생산기지의 '탈(脫) 구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지난 50년간 구미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세계 수출 대국 6위로 거듭났음을 잊지 말기 바라며,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과 미래를 위한 신산업투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1.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43만 구미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결정 철회 촉구를 위하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8년 7월 23일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